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의를 온 세계에 세우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 때에 우리가 주님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성가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을 보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은사로 우리를 양육하소서.

(회중)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랑과 삶을 나누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예를 드리오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이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도록 채우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유아 세례식>

파 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주님의 평화가 (일어서서)

1.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2.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후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위탁>

(목사)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축복> (고후13:13)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회중) 할렐루야! 아멘!

<후주> "O Come, All Ye Faithful" by H.Turner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 설교: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의 찬양”

본문: 시 148; 사 63:7-9; 히 2:10-18 >

✠ 교 회 소 식 ✠

- ㉠ 예 배: • 성탄발표회: 22일(주일) 오후1시30분
• 성탄축하음악예배: 25일(수) 오전11시
• 신년예배: 2020년 1월1일 오전7시

- ㉡ 모 임: • 사회봉사국- 26일(목) 독거노인반찬배달
• 부모교실 1기 모임- 29일(주일), 오후 1시 30분, 소허당
• 부모교실 1,2기 송구영신 모임- 31일(화) 오후 7시, 사택21호

- ㉢ 세례식: 22일(주일) 2부예배 시
-유아세례: 김이도(1부예배 시)
-세례: 서대창(중고등부), 서승현(청년), 민동호(장년)

- ㉣ 새가족학교 수료식 및 축하: 22일(주일) 2부 예배 시
-수료자명단: 권미경, 오영근, 이종성, 이영옥, 최인경, 김인영 김대수, 김경민, 김영기, 안윤희(10명)

- ㉤ 장년부 성경공부반: 2019년 하반기 장년성경 공부반이 오늘 종강합니다.
2020년 상반기 개강은 1월26일(주일)입니다.

- ㉥ 2019년 은퇴 및 추대식: 29일(주일) 2부 예배 시
- 원로장로: 윤상구
- 은퇴권사: 김영분, 김영자B, 노기방, 박경혜, 오정순, 윤순임, 이인희, 전정임, 제갈희선, 조정귀, 조정순(11명)
- 명예집사: 김문수, 김창희, 노태섭, 이병근, 최승배, 안인엽(6명)
- 명예권사: 김경희, 김재순, 김혜경A, 전영순, 차복자(5명)

- ㉦ 2020 파파손 주방설거지 봉사팀원 모집
- 일시 : 2020년 1월부터~(3~4개월에 1회)
- 대상 : 안동교회 남성 누구나
- 신청 : 로비 접수대 (문의 : 유장선, 윤병우 집사)

- ㉧ 올 한해 교적(주소, 전화번호, 구역 등)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분은 구역장이나 행정실에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황재금 장로)

- ㉨ “안동교회 110주년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로비에 봉투가 마련되어 있고 별도 은행계좌 (신한은행 140-006-719517 안동교회)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모금된 헌금은 최우선으로 110주년 특별사업 및 행사 비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교회 리모델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 명성교회세습반대 100만 성도 서명운동 본부
- 로비에 마련된 서명 용지에 서명해주세요
- 성명서와 용지를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 서명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매일성경 1, 2월호 판매합니다.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 교우소식:
• 감사: 이종서장로·김행미권사(602구역) 점심식사 제공.

<교 회 학 교 소 식>

1. 교회학교 성탄발표회 및 진급생 수료식:
22일(주일) 오후1:30, 본당
2.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일정: 1월 10~11일(금,토) / 장소: 장신대 유스워십캠프, 안동교회

1 부



대한예수교
창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2019년도 주제 :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12월 희망의 달> “세상의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로운 요셉의 고민

마태복음 1: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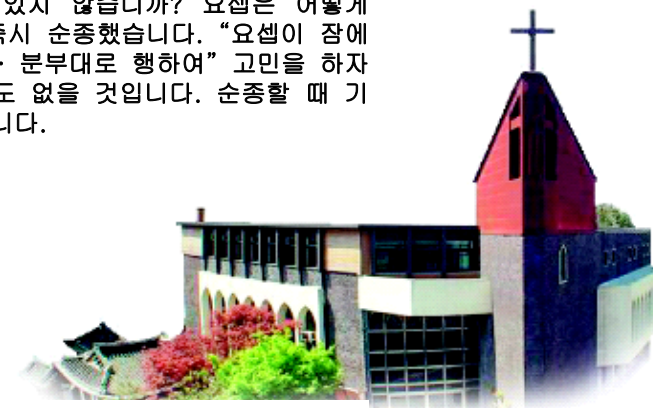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에 새시대가 열림을,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가 잉태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요셉에게는 어떤 부담과 고민이 있었을까요?

첫째, 요셉은 자기 인생이 망쳐질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천사가 한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지만, 어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말했다간 조롱 당할 뿐 아니라, 핑계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은 구원자 예수를 기를 능력도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다가 잘못해서 병이라도 들거나, 약도 의사도 없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아예 못한다고 거절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천사의 지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 분부대로 행하여” 고민을 하자면 끝이 없고, 답도 없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과 구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중포구 풍포안길 57 (건국중)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대림절 넷째주일 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모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대림절 촛불 점화>

(목사) 장차 오실 빛되신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이 초를 켵니다.

<징울림> 김오수 집사

<성경의 선언> (사45:8)

(목사)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충만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를 충만히 내리셔서 마리아와 함께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66장 다 갈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

(목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애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롬5:8, 히4:16)*(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미래의 하나님, 주님은 능력으로 오셔서 온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 주님의 약속하신 심판을 무시하고 주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웃을 착취했으며, 이 땅을 학대했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3) 용서의 선언

(목사)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오!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보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21장 다 갈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0-16절(975) : 황승우 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로마서 1장 1-7절(238) : 정정아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묵상> 오르간: "Gesu Bambino" by P. A. Yon
- 민동림 집사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장 18-25절(1) : 황승우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의로운 요셉의 고민 황영태목사

<설교 후 응답> (계7:12)

(목사)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유양재 집사